

# 03

## 농어업 농어촌 부문<sup>1)</sup>

### 1. 코로나19 사태 전북 농어업·농어촌 부문 현황

배균기 부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 코로나19 사태와 대응현황

코로나19 사태는 농어업·농어촌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충격은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인력수급, 수출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의 취약한 농수산업구조로 인한 피해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부문 주요 대책 추진현황 >

분 야	주 요 내 용
화훼	공공·유관기관 소비촉진 운동, 공공부문 구매 확대, 유관기관 소비 동참, 생산자단체 직거래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급식용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특판행사(꾸러미,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공동구매 캠페인, 임산부 지원 확대 등
수출	수출기업 대상 자율선택형 패키지 바우처사업 지원, 해외 현지 판촉행사 온라인 마케팅 확대 지원 등
인력·농기계	방문동거 외국인 계절근로 알선, 농촌인력증개센터 추가 지원,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기계임대료 인하 등
자금(융자) 지원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라북도농림수산물발전기금 융자 완화,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임대료 인하	생물산업진흥원, 농업인회관, 수산식품거점단지 등 입주 기업·소상공인·식당 등 임대료 감면(15~30%) 등

1)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해양부문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삼각농정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전체회의 2회, 주요 과제별 전문가세미나 12회(삼각농정위원회 8개 분과, 13개 과제)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방역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지원, 금융지원, 소득지원, 소비촉진 등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업·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어 따라 이제는 단순한 피해대책을 넘어 중장기 대책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전북지역의 주요 피해현황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과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촉행사 매출액이 전년 동월(3월)대비 63.7% 감소하는 등 주요 소비처의 판매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업인·법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산물·가공품 판매장 및 안테나숍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화훼류의 경우 사전판매 시장 축소 및 경매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각종 행사·모임 취소로 인한 판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식자재시장 매출 감소량을 온라인 매출로 메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식항어의 경우 약 80%를 소비하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발병과 출하 성수기(12~3월)가 맞물려 전년 동기(2~3월) 대비 출하량이 53.6% 급감하였다. 출하지연에 따른 적체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 예상액은 약 65억 원에 이르며, 급이량 증가 및 성어 재고량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소비시장의 변화는 농어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경영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급식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소개될 정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시장에 저가로 출하거나 공공기관 꾸러미 판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로를 마련해가고 있으나 양파·감자·엽채류 등 저장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판매량보다 폐기량이 많은 상황이다. 각 시·군마다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12월 이후 매출이 전무하여 일시적인 권고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식재료 가점공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농식품 가공업체의 재고물량 발생과 고정비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급식, 프랜차이즈 등 고정수요처에 대한 납품이 중지된 업체들이 많아 생산인력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석식품(HMR) 등 현장판매 비중이 높은 소규모업체의 경우 식품박람회, 중·소마트 등으로 판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sup>2)</sup>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유기가공식품(전통식품 등)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농산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쌀의 경우 외식산업 등 주요 소비처의 판매량 감소로 미국종합처리장(RPC)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보리 등 일부 곡류의 경우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거나 급감하였으며, 가공품의 중국수출도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온라인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판매 방식에 변화를 꾀하는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 수출 농가와 기업들은 물류비가 급증하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 판촉 및 마케팅 행사가 연기되고, 주요 바이어 및 유통업자의 재택근무로 영업활동이 어려워 장기적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도내 신선농산물(파프리카·화훼류 등) 역시 주요 수출국(일본 등)의 현지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본격적인 생산시기가 임박에 따라 잉여 농산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한편 국제여행객선 운항선사의 경우 중국 석도와 군산의 여객은 잠정 휴항한 상태로 화물만 주 6항차에서 3항차로 감차 운항 중이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40.8% 감소하였다.

농어촌 체험·관광 분야의 경우 방문객수와 매출액이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며<sup>3)</sup>, 대다수의 사업장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촌체험마을 역시 매년 3월부터 운영해오던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 여름방학 성수기 사전예약 취소가 지속되고, 학교개학 연기 등 수업일수 부족으로 체험학습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휴업상태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재택근무·무급휴가 등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각종 축제 등이 취소됨에 따라 대규모 방문객 유치, 농축수산물 판매, 체험·숙박 등 연계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인력수급과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대부분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번기를 맞은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귀농·귀촌의 경우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농가소득 감소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4)</sup>

---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우 전년 동월(3월) 대비 매출액이 21.0% 감소하였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도내 137개소)은 전년 동월(3월) 대비 방문객수는 53.3%, 매출액은 54.8% 감소하였다. 어촌체험마을(군산2, 고창3, 부안1)의 경우 전년 동기(2~3월) 대비 방문객수는 80.3%, 매출액은 76.9% 감소하였다.  
4) 2009~2014년 지원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창업 융자금은 469억 원(398건), 주택구입은 55.6억 원(133건), 2015~2019년 지원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창업 융자금은 2,593억원(1,429건), 주택구입은 194.6억 원(302건) 규모이다.

## 2.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트렌드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증가

헨리 키신저(전 미국 국무장관)는 “팬데믹이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며,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즈)은 “앞으로 세계 역사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sup>5)</sup> 기존의 생활방식과 트렌드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과 수요에 동시적인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농어업·농어촌의 생산 및 소비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과 폐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이어져 경제적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로 국제 농산물의 불안정한 수급상황도 지속될 전망이다. 식량안보에 대한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 곡물생산국(베트남·태국·러시아 등)의 수출제한 정책으로 글로벌 푸드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sup>6)</sup>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국가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이 급감함에 따라 물류여건 역시 지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먹거리의 소비패턴과 식생활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활동적인 생활방식(on the go lifestyle)’에서 ‘가정 내 안전한 소비(safe in-home consumption)’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sup>7)</sup> 코로나 19 확산은 외식의 감소와 가정식을 지향하는 식습관 변화로 이어졌다. 필수 식재료(쌀·면·

5) 언택트경제 가속...외국 노동자 의존 한국 농업생산은 비상(서울신문, 2020.4.16)

6) 트경제 가속...외국 노동자 의존 한국 농업생산은 비상(서울신문, 2020.4.16)

7) Kati(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 자료(2020.4.17.)에서 작성.



식용유 등)를 중심으로 저장과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른 생활방역 체계에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안전을 고려한 먹거리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발효식품(김치 등)에 대한 소비는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언택트경제, 비대면 거래와 여가활동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수축산물 판매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무인판매장, 온라인몰,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거래방식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온라인쇼핑·홈쇼핑 등을 통한 식재료 및 농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택배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면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여행 등 관련 여가서비스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여행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해외보다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생활방역 체계에서 문화·예술·스포츠·레저·취미 등이 비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여가활동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 3. 포스트 코로나, 전북의 영향과 과제

#### 소비자 행동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소비패턴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온라인쇼핑, 가정식 수요 증가 등 트렌드에 맞는 농식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이용과 보관이 용이한 농산물(신선채소류 등) 생산과 상품화(소량구매·택배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행동변화에 맞춰 외식·소매 업계의 마케팅 방식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 유통 및 거래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유통업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대형마트 이용이 둔화된 반면 근거리 슈퍼·편의점을 통한 소비는 증가하였다. 가장 충격이 컸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이라는 제한된 시장을 벗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 온라인시장 대응과 체험·관광 활로 모색

언택트경제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올해 농식품 유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즉시배송시대, 신선농산물의 온라인시장 확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sup>8)</sup> 그만큼 온라인 중심의 거래방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프라인 유통에 집중해왔던 방식들이 빠르게 전환해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취약한 농어업·농어촌 부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체험·관광의 경우 다중 밀집시설을 기피하고, 안전을 중시하며, 소규모 그룹 형태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행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농어촌 체험·관광의 경우 학

8) (사)신유통연구원 2020년 10대 농식품 유통이슈(2019.3.13.), 조사기간 2020.1.21~2.5, e신유통 독자 22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공기업 등 대규모 방문객 중심의 운영구조로 국내여행 수요 확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변화된 근로형태(재택근무·원격근무 등)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변화와 다양한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관계형 시장의 중요성 재인식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상호존성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안전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활동을 돕는 사회적 소비로 발전해가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공동판매장 등 관계형 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더불어 착한 소비운동, 꾸러미 배달서비스 등에 동참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비가 농어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기회로 전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로컬푸드 체계를 강화해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관계형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해가는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 글로벌 농식품 물류여건과 인력수급 대응

전라북도는 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 감소로 인한 잉여농산물 발생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익산시는 홍콩에 쌀(새일미)을 매달 20톤씩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등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전북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연계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마케팅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작물재배의 경우 인력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입국규제 강화, 격리기간 발생 등으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도시지역의 인력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 4. 포스트 코로나, 전북의 분야별 대응방향

###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

현재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급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sup>9)</sup> 그러나 농산물 성수출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홍수출하로 인한 판로의 어려움과 가격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한 소비촉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판매방식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방식의 다양한 판촉활동(드라이브 스루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분야로 여겨지는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대표 쇼핑몰 '거시기장터'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바일시스템 개편, 다양한 품목·업체 발굴, SNS·유튜브·포털 광고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더불어 공공기관·기업체 폐쇄몰(복지몰) 입점, 소상공인 쇼핑몰 쿠폰지원 확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농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광역단위 유통기능을 수행할 물류센터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 내 유통은 참여법인의 시설을 통해 가능하지만 수도권 등 도외로 유통되는 물량과 오프라인 소비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우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도 작동이 가능한 축산물 유통·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역체계를 갖춘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격형성의 합리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수입산 종자·종패의 비중을 낮춰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농수축산물가격은 전월(3월) 대비 3.2% 상승하였다. 농산물가격이 상승 전환(-2.6%~0.1%)하였으며, 축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2.5% ~ 6.7%)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학교급식을 안정화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장해야한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별로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활성화 및 전문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급식 중단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기반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전라북도는 올해 광역 푸드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강·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광역-기초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하다.

### **농식품·생명 산업 및 수출 분야**

단기적으로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인력 유지, 고정비 지출, 대출상환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신용도 및 담보역량이 부족해 금융지원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개발 및 판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정 내 즉석편의식품, 온라인 소포장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시장경쟁력을 높여야할 것이다. 전염병 발생 시 가공시설(도축장 등) 가동중단 등 경영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 개선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식품 수출 재개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판촉활동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마케팅 체계로 전환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농식품·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해야한다. 면역력 향상을 돕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발효식품(김치·장류 등), 인삼, 허브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나아가 바이오헬스 등 BT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미생물산업 등 농생명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 **농어촌 체험·관광 및 인력수급 분야**

단기대책으로 농어촌 체험·관광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안전·안심을 강조하고, 대상을 세분화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가족단위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장기체류, 인규유입 등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한다. 중장기관점에서 체험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등 위기상황에 상호 부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어촌이 단순한 체험·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삶터·쉼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간인력 사무소와 연계 채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적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자(C-4) 채용범위를 확대하고, 파견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해결해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여성의 자립과 고립감·소외감 해소를 위한 복지증진방안도 충실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sup>10)</sup>



10) 2020년 상반기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106농가, 2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결혼이주여성 가족초청이 전체의 81.2%(207명)를 차지하고 있다.